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로 본 세계 속의 한국경제(2006)¹⁾

I. 경제규모 :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

2006년 중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8,880억 달러²⁾로 비교대상 185개국 중 1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5년과 비교하여 순위가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러시아의 GDP순위가 2005년의 14위에서 2006년에는 11위로 3단계나 상승한 데 기인하였다.

<표 1>

2006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단위 : 십억달러, 시장환율 적용)

국 가 명	순위	금 액	한국대비규모 (한국=100)	국 가 명	순위	금 액	한국대비규모 (한국=100)
미 국	1	13,163.9	1,482	러 시 아	11	986.9	111
일 본	2	4,368.4	492	인 도	12	911.8	103
독 일	3	2,896.9	326	한 국	13	888.0	100
중 국	4	2,644.7	298	멕 시 코	14	839.2	94
영 국	5	2,377.0	268	호 주	15	780.5	88
프 랑 스	6	2,248.1	253	네 덜 란 드	16	662.3	75
이 탈 리 아	7	1,851.0	208	터 키	17	402.7	45
캐 나 다	8	1,271.6	143	벨 기 에	18	394.0	44
스 페 인	9	1,224.7	138	스 웨 덴	19	383.8	43
브 라 질	10	1,067.5	120	스 위 스	20	380.4	43

1) 이 자료는 세계은행이 금년 4월 발표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중 국민계정 관련 통계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다만, 이 자료의 우리나라 수치는 잠정치이기 때문에, 당행이 발표한 확정치와는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은 동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 등 관련 지표를 비교하고 있다.

2) 세계은행 명목 GDP 규모가 당행 발표치인 8,875억달러와 차이가 나는 것은 원화표시 GDP 통계를 달러표시 통계로 바꿀 때 적용하는 환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08년 3월 공표된 2006년 국민계정 확정치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목 국민총소득 세계 1위는 미국(13조 3,869억달러)이며, 2위와 3위는 각각 일본(4조 9,347억달러)과 독일(3조 326억달러)이 차지하였고 중국(2조 6,210억달러)은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러시아는 세계 13위를 기록하여 2005년 대비 순위가 3단계 상승하였다.

한편 2006년 중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규모는 8,566억달러³⁾로 비교대상 209개국 중 1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5년과 비교하여 순위가 1단계 하락한 것이다.

<표 2>

2006년 주요국의 국민총소득

(단위 : 십억달러, 시장환율 적용)

국 가 명	순위	금 액	한국대비규모 (한국=100)	국 가 명	순위	금 액	한국대비규모 (한국=100)
미 국	1	13,386.9	1628	브 라 질	11	892.6	109
일 본	2	4,934.7	600	한 국	12	856.6	104
독 일	3	3,032.6	369	러 시 아	13	822.3	100
중 국	4	2,621.0	319	멕 시 코	14	815.7	99
영 국	5	2,455.7	299	호 주	15	742.3	90
프 랑 스	6	2,306.7	281	네 덜 란 드	16	703.5	86
이탈리아	7	1,882.5	229	스 위 스	17	434.8	53
스 페 인	8	1,206.2	147	벨 기 에	18	405.4	49
캐 나 다	9	1,196.6	146	스 웨 덴	19	395.4	48
인 도	10	909.1	111	터 키	20	393.9	48

3) 당행이 발표한 2006년 GNI규모인 8,887억달러와 차이가 나는 것은 원화표시 GNI통계를 달러표시 통계로 변환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세계은행은 각국 통화표시 GNI의 달러 환산시 최근 3개년 가중평균환율을 적용(Atlas방식)하는 반면 당행은 연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 참고 >

러시아의 GDP 규모 대폭 증가 요인

— 러시아의 2006년 GDP 규모 순위는 세계 11위로 2005년의 14위에서 3단계 상승

○ 러시아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출호조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한 데다 고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도 높은 상승세 지속

→ 2006년 러시아의 달러표시 명목 GDP가 대폭(29.1%) 증가한 것은 물가 요인이 크게 작용

주요 지표 증가율 추이

(전년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명목 GDP 증가율 (달러금액 기준)	■ 한 국	11.9	16.3	12.2
	■ 러시아	37.1	29.2	29.1
	■ 인 도	15.6	15.8	13.2
GDP 성장률	■ 한 국	4.7	4.2	5.0
	■ 러시아	7.1	6.4	6.7
	■ 인 도	8.3	9.2	9.2
환율 등락률	■ 한 국 (₩/US\$)	-4.0	-10.5	-6.7
	■ 러시아 (RUB/US\$)	-6.1	-1.7	-4.0
	■ 인 도 (Rs/US\$)	-2.8	-2.7	2.7
물가 상승률 (GDP디플레이터 기준)	■ 한 국	2.7	-0.2	-0.4
	■ 러시아	20.1	19.2	16.1
	■ 인 도	4.4	4.4	5.9

자료 : 한국은행, 세계은행

II. 경제성장률

2006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5.0%로 경제규모(2006년 달러표시 GDP 기준) 상위 50위권 국가 중 22위(세계평균 : 3.8%)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률 세계 1위는 중국(10.7%)이며, 2위와 3위는 베네수엘라(10.3%)와 인도(9.2%)가 차지하였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브라질(3.7%), 멕시코(4.8%), 호주(2.5%)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인도(9.2%)와 러시아(6.7%)보다는 낮았다.

<표 3>

경제규모 상위 50위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순위 비교

(단위 : 전년대비, %)

2006년 GDP 규모 순위	국 가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년 경제성장률 순위
4	중 국	9.1	10.0	10.1	10.4	10.7	1
36	베네수엘라	-8.9	-7.8	18.3	10.3	10.3	2
12	인 도	3.7	8.4	8.3	9.2	9.2	3
11	러 시 아	4.7	7.3	7.1	6.4	6.7	11
13	한 국	7.0	3.1	4.7	4.2	5.0	22
14	멕 시 코	0.8	1.4	4.2	2.8	4.8	25
10	브 라 질	2.6	1.3	5.7	2.9	3.7	33
1	미 국	1.6	2.5	3.9	3.2	2.9	39
3	독 일	0.0	-0.2	1.2	0.9	2.8	42
5	영 국	2.1	2.7	3.3	1.9	2.8	43
15	호 주	3.2	4.1	2.7	2.8	2.5	45
2	일 본	0.3	1.4	2.7	1.9	2.2	46
6	프 랑 스	1.0	1.1	2.5	1.7	2.0	47
	세계 평균	1.9	2.7	4.1	3.5	3.8	-

Ⅲ.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06년 중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17,690달러⁴⁾로 비교대상 209개국 중 5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포르투갈(17,850달러, 50위)과 비슷한 수준이나 홍콩(29,040달러, 31위)과 싱가포르(28,730달러, 33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4>

2006년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단위 : 미달러, 시장환율 적용)

국 가 명	시장환율		PPP환율		국 가 명	시장환율		PPP환율	
룩셈부르크	1	71,240	1	60,870	캐 나 다	22	36,650	16	36,280
노르웨이	2	68,440	4	50,070	프 랑 스	24	36,560	34	32,240
버뮤다	3	..	2	..	호 주	25	35,860	26	33,940
스위스	6	58,050	11	40,840	이탈리아	28	31,990	38	28,970
덴마크	7	52,110	17	36,190	홍 콩	31	29,040	12	39,200
아이슬란드	8	49,960	28	33,740	싱 가 포 르	33	28,730	9	43,300
아일랜드	10	44,830	19	34,730	그 리 스	34	27,390	36	30,870
미국	11	44,710	8	44,070	스 페 인	35	27,340	39	28,200
스웨덴	12	43,530	20	34,310	뉴질랜드	37	26,750	44	25,750
네덜란드	13	43,050	15	37,940	이스라엘	44	20,170	49	23,840
핀란드	16	41,360	30	33,170	바 레 인	45	..	21	..
영국	17	40,560	29	33,650	포 르 투 갈	50	17,850	57	19,960
오스트리아	18	39,750	18	36,040	한 국	51	17,690	50	22,990
일본	19	38,630	31	32,840	사우디아라비아	55	13,980	52	22,300
벨기에	20	38,460	27	33,860	체 코	56	12,790	55	20,920
독일	21	36,810	32	32,680	헝 가 리	62	10,870	61	16,970

4) 세계은행 발표치는 Atlas 방식에 의한 것이며, 당행이 발표한 2006년 1인당 GNI는 연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한 달러환산치로 18,401달러이다.

1인당 GNI의 세계순위는 1위 룩셈부르크(71,240달러), 2위 노르웨이(68,440달러), 3위 버뮤다⁵⁾이며 미국(44,710달러)과 일본(38,630달러)은 각각 11위와 19위를 차지하였다.

<참고>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본 1인당 국민소득

구매력평가 환율⁶⁾로 계산한 2006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22,990달러(208개국 중 50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환율로 평가한 1인당 GNI 17,690달러(51위)보다 1.3배 큰 수준이다.

PPP환율은 국가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 보다는 자국화폐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했을 때의 1인당 GNI 순위가 시장환율로 평가했을 때보다 1단계 상승한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물가수준이 낮아 통화의 실질 구매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매력으로 평가할 경우 미국(44,070달러)이 세계 8위로 시장환율로 평가했을 때보다 3단계 상승하였으나, 일본(32,840달러)은 31위로 12단계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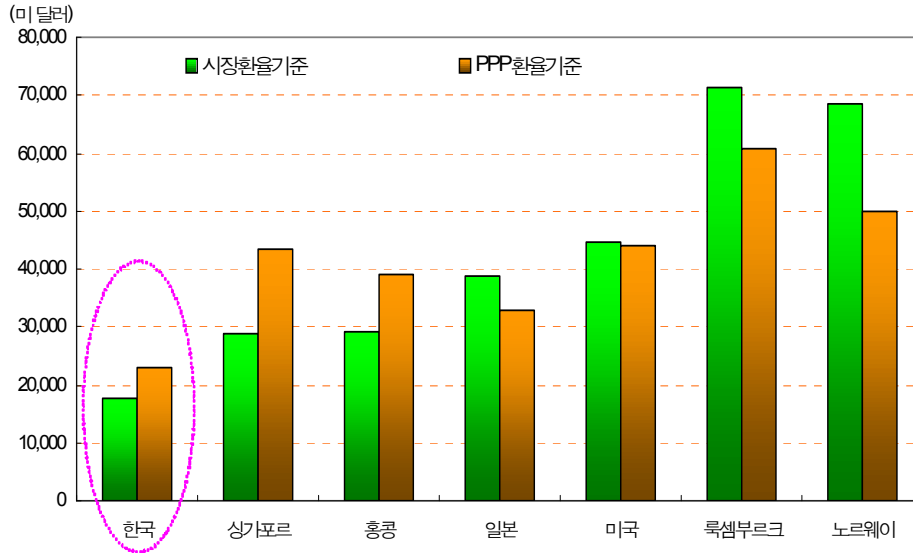
5) 버뮤다의 경우 통계 미제공으로 인해 1인당 GNI 수치가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8」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순위는 세계은행의 추산치(approximation)이다.

6) 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이란 환율이 장기적으로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통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가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즉 미국에서 1달러를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포함)을 비교국 시장에서 비교국 화폐로 구매할 때의 가격으로 평가하며 국가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제비교 하는 데 사용된다.

<그림 1>

2006년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단위 : 미달러, 시장환율 및 PPP환율 기준)



IV. 선·후진국 간 소득격차

2006년 중 각 소득그룹별 국민총소득(GNI)이 세계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고소득국가군⁷⁾이 전체 소득의 77.5%를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국가군은 3.2%에 불과하였다.

세계전체(209개국) 평균 1인당 GNI는 7,448달러로 2005년(7,011달러)보다 6.2% 증가하였다. 또한 고소득국가군의 1인당 GNI(36,608달러)가 2005년(35,014달러)보다 4.6%, 저소득국가군의 1인당 GNI(649달러)는 2005년(583달러)보다 11.3% 증가하여 선·후진국간 소득격차⁸⁾가 2005년의 60배에서 56배로 축소되었다.

7) 고소득국가군은 각국 1인당 GNI기준 11,116달러 이상의 국가군으로 인구비중 15.8%에 해당하며, 저소득국가군은 905달러 이하의 국가군으로 인구비중 37.0%를 차지한다.

8) 고소득국가의 1인당 GNI/저소득국가의 1인당 GNI

<표 5>

2006년 소득그룹별 GNI 현황

소득그룹별	인구 (백만명)	GNI (미 십억달러)	1인당 GNI (미 달러)
저소득국가 (\$905 이하)	2,420 (37.0)	1,571 (3.2)	649 < 8.7>
중하위소득국가 (\$906 ~ 3,595)	2,276 (34.8)	4,640 (9.5)	2,038 < 27.4>
중상위소득국가 (\$3,596 ~ 11,115)	811 (12.4)	4,797 (9.9)	5,913 < 79.4>
고소득국가 (\$11,116 이상)	1,031 (15.8)	37,732 (77.5)	36,608 <491.5>
계	6,538 (100.0)	48,694 (100.0)	7,448 <100.0>

주: () 내는 전체규모에 대한 비중(%), < > 내는 1인당 GNI의 세계평균에 대한 비율(%)

<표 6>

2006년 아시아 주요 국가의 GDP 및 1인당 GNI

(단위 : 미 백만달러, 달러)

국 가 명	GDP (시장환율기준)		1인당 GNI			
	순위	금 액	시장환율기준		PPP환율기준	
			순위	금 액	순위	금액
일 본	2	4,368,435	19	38,630	31	32,840
중 국	4	2,644,681	130	2,000	133	4,660
한 국	13	888,024	51	17,690	50	22,990
인 도 네 시 아	21	364,790	140	1,420	149	3,310
타 이	33	206,338	110	3,050	104	7,440
말 레 이 시 아	38	150,672	79	5,620	75	12,160
싱 가 포 르	42	132,158	33	28,730	9	43,300
필 리 핀	46	117,562	142	1,390	146	3,430
베 트 남	58	60,999	169	700	157	2,310
캄 보 디 아	119	7,258	180	490	174	1,550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 이승철 조사역>